

#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North Korean Refugees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yle

Han-Min Lee\*, Seong-Ok Kweon\*\*, Hwieseo Park\*\*\*

## Abstract

This study is to test moderating effects of North Korean Refugees' coping styles in the causal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helping social adjust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For this study, 100 North Korean Refugees were sampled and surveyed. The analytical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degree of psychological wellbeing was highest among the refugees of the entire families migration. Also, this study showed that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as not significant, and moderating effects of emotional support and appraisal support were significant, while moderating effects of material support and informative support were not significant. In this study, we suggested some policy implications basing on this analytical results.

▶ Keyword : North Korean refugee, psychological wellbeing, social support, coping style, family type

## I. Introduction

2014년 말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7,518명에 이르러, 이제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과 제도를 제정하고, 사회교육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 취업지원, 사회보장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의 정착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등 부적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이 심리적 안녕감이라 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그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관해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부적응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양한 요인 중에서도 사회적 지지의 부족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정은 남한사회 정착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남북하나재단의 2014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생활에 불만족한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 31.5%, 다음으로 남한주민들의 각종 편견과 차별이라는 의견이 24.1%로 조사됐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같은 동포인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정착과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우선되어야겠지만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의 따뜻한 사회적 지지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에 대한 완화 효과와 개인의 정신건강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하여 문제해결을 도전으로 받아 드리는 대처능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다[1].

지금까지의 사회적 지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2]와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3] 등이 있으며,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외상경험[4], 우울성향[5]에 관한 연구 등이 있으나, 북한이탈주민

• First Author: Han-Min Lee, Corresponding Author : Hwieseo Park

\*Han-Min Lee(hanmin63@korea.kr). Buggu District Office, Gwangju Metropolitan City

\*\*Seong-Ok Kweon(kso1255@hanmail.net). Dept of Social Welfare, Songwon University.

\*\*\*Hwieseo Park(hspark@chosun.ac.kr).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 Received: 2016. 02. 15, Revised: 2016. 02. 22, Accepted: 2016. 02. 28.

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정착은 그들의 가족형태, 즉 가족단위로 탈북했느냐 아니면 단신으로 탈북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정착에 관한 연구는 그들의 가족형태도 함께 고려하여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안녕감은 그들의 가족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중요한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러한 인과관계는 그들의 대처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 II. Theoretical Background

### 1.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Refugees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탈북자', '이민자', '귀순자', '탈북난민', '탈북동포', '새터민', '자유이주민'이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내 입국은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 등을 견디지 못하고 중국으로 탈북하여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일부가 북에 남은 가족과 친지의 남한 행을 돕는 기획탈북이 많아졌다. 또한 보다 자유로운 생활환경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북한이탈 동기와 차이가 있다[6].

이들은 탈북이전 북한에서 생활하면서 공개처형 장면목격, 식량부족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 등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정치적 이념갈등, 각종 질환 등을 경험하였으며[7], 탈북이후에는 제3국에서 북한의 강제송환이라는 압박감과 불법체류자의 법적 지위를 이용한 노동력 착취, 여성의 인신매매 등과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8]. 그리고 남한 입국 이후에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의 부적응, 차별, 고독감, 죄책감, 열등감 등으로 정체성과 가치기준의 혼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9].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입국과 성공적인 사회적응은 통일을 촉발시키는 씨앗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정부와 우리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 북한의 인권실태와 정치, 경제적 실태가 공개됨으로써 북한사회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10].

### 2. Social Support

사회적 지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공되는 자원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나 위기에 직면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중요한 체계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한 조화로운 관계를 이룸으로써 안정적이고 기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된 것으로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House[11]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분류했다. 정서적 지지는 존경, 애정, 신뢰, 관심 등의 행위, 정보적 지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물질적 지지는 돈, 물건을 제공하거나 필요시 직접적으로 일을 돕는 행위를 포함하며, 평가적 지지는 자신의 행위를 칭찬해 주거나 인정해 주는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박미석과 이종남[12]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장과 고충을 알아준다는 면에서 개인의 긍정적인 정서를 증가시키고, 안정감과 위안을 주는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게 되면,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주민들과 상호 유대관계를 발전시킬 기회가 많아지며, 그러한 과정에서 남한사회로 통합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13].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4].

### 3. Psychological Wellbeing

삶의 질에 대한 평가는 삶의 객관적인 조건을 주관적으로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여기서 주관적 안녕감이란 개인이 삶에 대해서 즐겁고 기쁘게 느끼고 있는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의미한다. 그런데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쾌락적 관점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려는 것으로 접근 자체가 심리학이론과 일치하지 않으며, 행복에 초점을 맞추는 행복론적 관점에서 측정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15].

이러한 관점에서 Ryff[15]은 삶에 대해 전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주관적 안녕감 보다는 심리적 안녕감이 삶의 질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개념이라 하였다. 그는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6개 하위요인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할 수 있는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개발하였다. 즉, 심리적 안녕감을 자기-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환경에 대한 통제력, 자율성 등이 그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생활과 제3국에서의 비인권적 경험 그리고 남한사회 입국이후에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 북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죄책감, 취업문제, 차별감, 열등감, 불안감, 문화충격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 입국한 초기 3개월 이내에서 수면장애를 포

합한 불안증은 80%,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30%, 우울증 15% 정도로 추계하였으며, 지역사회 정착 이후 2~3년 정도의 시점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드러났다[16].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PTSD 유병률은 29.5%로 나타났다. 이는 배고픔, 고문, 공개처형, 강간 등 신체적 외상 뿐 만 아니라 가족 및 사회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외상이 PTSD의 발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4].

#### 4. Family Types, Coping Styl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가족은 인간의 정서적 지지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지지 체계로 가족과 동반 탈북한 사람과 단신으로 탈북한 사람과는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차이는 크다[17]. 이기영과 성향숙[18]은 가족과 함께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에는 가족에 대한 죄책감 등이 크지 않아 적응에 도움이 되고, 서로의 지지를 통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윤인진(1999)[19]의 연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가족변수를 꼽았으며, 가족을 동반해 탈북한 사람들이 단신으로 탈북한 사람보다 경제적, 심리적으로 빠른 안정을 찾는다고 보았다.

다른 연구에서는 가족동반 여부에 따른 CES-D 점수에서 가족동반 북한이탈주민이 단독으로 이주한 북한이탈주민 보다 더 높은 우울증을 보이고 있었으며, 가족을 동반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40%가 임상적인 우울증으로 구분되었다[5]. 이는 초기의 심리적 안정과 적응에의 자신감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 정착지원금이나 주택지원금을 단신이주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보았다.

대처방식이란 부정적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긍정적 결과를 유도해 내려는 과정이다[20]. Lazarus & Folkman[21]은 적극적인 대처와 소극적인 대처로 나누었다. 적극적 대처는 어떤 상황이나 개인의 행동, 또는 둘 다의 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행동해 나가는 책략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소극적 대처는 문제해결 보다는 기분이나 정서상태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긍정적 기제 또는 부정적 기제가 사용되는 대처방식이다. 남한사회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는 북한이탈가족의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보다는 직면하여 이를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었다[12]. 적극적 대처방식의 사용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적극적 대처방식이 사회적 지지를 높여 간접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2].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가족형태와 대처방식은 직면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지지해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요인이며, 심리적 안녕감에도 유의한 연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시 가족형태와 대처방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 III. Research Design

#### 1. Research Model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안녕감이 가족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 인과경로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대처방식이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해 본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수로, 대처방식을 조절변수,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여기서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연구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1.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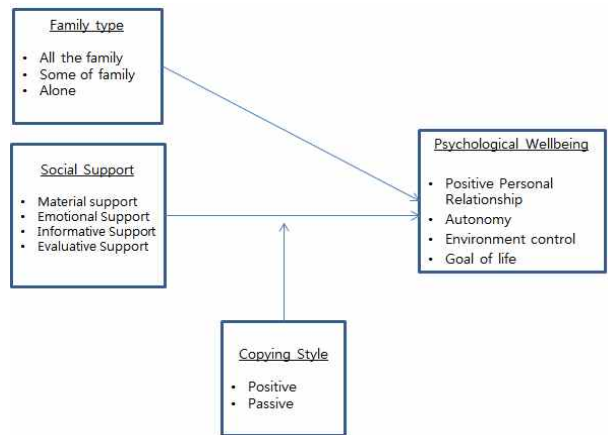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2. Object of Study and Data Collection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 5. 7일부터 2015. 6.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광주광역시 5개 구청 중 전체의 거주자에게 우편발송을 승낙해준 북구는 담당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연구자 명으로 설문지를 발송하고 회송봉투를 활용하여 설문지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나머지 4개 구청은 광주하나센터의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의 협조를 받아 전문상담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편 발송한 북구의 경우 거주자 198명 전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설문지는 40부이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들이 4개 구청에서 조사한 설문지는 60부로 최종적으로 100부를 분석하였다.

#### 3. Measurement

사회적 지지는 박지원[23]에 의해 개발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구분하였다. 원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4개영역 중에서 16개 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조사결과 신뢰도는 Cronbach's = .913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의 측정을 위해 Ryff(1989)[15]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Well-Being Scale : PWB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지배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등 6개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 척도는 54문항에 6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는 연구목적에 맞추어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통제, 삶의 목적 등 4개영역에 16문항을 선별하여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조사결과 신뢰도는 Cronbach's = .82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처방식은 Lazarus와 Folkman[21]이 개발한 척도로 오수성 등(2010)[15]이 수정한 척도를 이 연구의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문제중심과 사회적 지지를 영역으로 하는 적극적 대처와 정서완화와 소망적 사고를 영역으로 하는 소극적 대처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오수성 등(2010)[9]이 사용한 13개 문항을 재 수정하여 5점 척도로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72$ 이었다. 마지막으로 가족형태는 가족전체, 가족동반, 단신입국 형태로 구분하였다.

4. Analytical Method

본 연구에서 제한한 연구모형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SPSS 21.0를 활용하여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를 분석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분석하고, 척도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alpha)를 검증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 사이에서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통하여 변수의 직접효과와 조절효과를 분석하고, 각 변수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비교하였다. 또한 가족형태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통해 평균차이를 검증했다.

IV. Analytical Results

1. Characteristics of Sample

전체 100명의 대상자중 여자가 71명(71.7%)으로 대다수였다. 연령은 30대~ 40대가 60.6%, 남한내 거주기간은 5년 이내가 66.7%, 제3국에서 거주기간은 1년내가 39%로 가장 많았고, 8년이상 거주자도 24.2%나 되었다. 특히 단신 탈북자는 28.0%, 가족동반 탈북자는 72.0%로 최근 기획탈북자가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이중 53.5%가 북한내 가족과 연락이 되고 있다. 또한, 심리적으로 가장 힘든 것은 북한 또는 제3국에 있는 가족의 신변안전이 31.3%, 경제적 어려움이 29.3%로 나타났으며, 남한사회에서의 가장 위로가 되는 사람

은 하나센터의 북한이탈전문상담사가 33.3%, 가족이 29.3%순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

category		N	%	category	N	%		
gender	M	28	28.3	motive of refugee	improved life	36	36.4	
	F	71	71.7		difficulties of life	19	19.2	
Age	below 20	18	18.2		complain against political system	14	14.1	
	30	34	34.3		others	30	30.4	
	40	26	26.3		Type of family	all the family	36	36.0
	50	13	13.1			some of family	36	36.0
	above 60	8	8.1	alone		28	28.0	
Education	elementary	6	6.1	communication	yes	53	53.5	
	middle	18	18.2		no	46	46.5	
	high	53	53.2	Psychological Burden	family safety	31	31.3	
	college	22	22.3		economic problems	29	29.3	
Period of stay in other countries	0 ~ 1yr	39	39.4		others	39	39.4	
	1 ~ 4yrs	20	20.3	helper	Hana Center	33	33.3	
	5 ~ 7yrs	16	16.1		family	29	29.3	
	above 8 year	24	24.2		others	37	37.4	

2. Family Typ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가족형태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은 세 집단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세 집단의 심리적 안녕감 평균은 가족전체가 입국하였을 경우 3.5934, 단신입국의 3.7013, 가족일부 동반의 경우는 3.8157순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은 가족동반과 단신입국의 두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가족전체와 가족일부 입국의 경우에 안녕감에 차이가 큼에도 동일시 한 결과로 분석된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var.	N	mean	S.O.
All family	36	3.5934	.55553
Some of family	36	3.8157	.64666
alone	28	3.7013	.66384
sum	100	3.7036	.62138

3.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Wellbeing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평가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물질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Wellbeing

model	non 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significance
	B	S.O	beta		
material support	.152	.137	.102	1.914	.182
emotional support	.234	.109	.144	2.356	.063
information support	.261	.193	.167	2.535	.050
evaluation support	.337	.185	.262	2.909	.045

a. Dep. Var : Psychological Wellbeing

#### 4.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yle in the Causal Path between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 4.1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yle in the Causal Path between Emotion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의 사이에서 대처방식의 조절효과는 다음과 같다. 검증한 결과, R제곱은 모형 1은 0.7%, 모형 2는 45.4%, 모형3은 55.4%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단계의 유의확률은 0.001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처방식은 정서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인과관계에서 조절변수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yle in the Causal Path between Emotion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um of Model						
model	R	R <sup>2</sup>	Adj R <sup>2</sup>	statistic change		
				R <sup>2</sup> Change	F change	sig. change
1	.007a	.000	-.010	.000	.005	.451
2	.454b	.206	.189	.206	25.139	.000
3	.554c	.307	.285	.101	13.940	.001

a. predict(constant, emotional support)  
 b. predict(constant, emotional support, copying style)  
 c. predict(constant, emotional support, copying style, interaction)

##### 4.2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yle in the Causal Path between Apprais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평가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 사이에서 대처방식의 조절효과는 다음과 같다. 검증한 결과, R제곱은 모형 1은 5.7%, 모형 2는 46.9%, 모형3은 54.1%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단계의 유의확률은 0.002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처방식은 평가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인과관계에서 조절변수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yle in the Causal Path between Apprais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um of Model						
model	R	R <sup>2</sup>	Adj R <sup>2</sup>	statistic change		
				R <sup>2</sup> Change	F change	sig. change
1	.057a	.003	-.007	.003	.321	.572
2	.469b	.220	.204	.217	27.017	.000
3	.541c	.293	.271	.073	9.886	.002

a. predict(constant, evaluative support)  
 b. predict(constant, evaluative support, copying style)  
 c. predict(constant, evaluative support, copying style, interaction)

##### 4.3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yle in the Causal Path between Mater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물질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 사이에서 대처방식의 조절효과는 다음과 같다. 검증한 결과, R제곱은 모형 1은 4.5%, 모형 2는 45.3%, 모형3은 47.4%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3단계의 유의확률은 0.132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처방식은 물질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인과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yle in the Causal Path between Mater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um of Model						
model	R	R <sup>2</sup>	Adj R <sup>2</sup>	statistic change		
				R <sup>2</sup> Change	F change	sig. change
1	.045a	.002	-.008	.002	.198	.658
2	.453b	.206	.189	.204	24.865	.000
3	.474c	.224	.200	.019	2.310	.132

a. predict(constant, material support)  
 b. predict(constant, material support, copying style)  
 c. predict(constant, material support, copying style, interaction)

#### 4.4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yle in the Causal Path between Informative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 사이에서 대처방식의 조절효과는 다음과 같다. 검증한 결과, R제곱은 모형 1은 4.6%, 모형 2는 45.5%, 모형3은 46.5%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3단계의 유의확률은 0.288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처방식은 정보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인과관계에서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yle in the Causal Path between Informative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um of Model						
model	R	R <sup>2</sup>	Adj R <sup>2</sup>	statistic change		
				R <sup>2</sup> Change	F change	sig. change
1	.046a	.002	-.008	.002	.205	.652
2	.455b	.207	.190	.205	25.041	.000
3	.465c	.216	.192	.009	1.140	.288
a. predict(constant, informative support)						
b. predict(constant, informative support, copying style)						
c. predict(constant, informative support, copying style, interaction)						

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형태를 고려한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사회적 지지의 세부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평가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물질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칭찬해 주거나 인정해 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이 향상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대처방식은 사회적 지지인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에서는 유의미한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물질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와의 사이에서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에는 정서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의 분석에서 정서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검증기준을 완화시키면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나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키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을 표본추출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연구로 표본의 대표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표본추출을 통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할 것이고,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V. Discussion and Conclusion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안녕감이 가족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가 대처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첫째, 남한사회 입국시 가족형태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정도는 가족 일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단신입국, 가족 전체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가족일부가 함께 입국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가장 잘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가족 전체가 입국한 경우에는 심리적 안정감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가족 일부가 입국한 경우는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반면에, 가족 전체가 입국한 경우에는 가족에 대한 가장의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되어 심리적 안정감이 낮게 나타

## REFERENCES

- [1] Gang Yungyong.(2012). "The influence of marriage immigrant women's psychological and social stress on suicidal thinking :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Sungkyul Uni. Ph.D thesis.
- [2] Kim Jonggook & Jo Ami.(2008).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North Korea Refugee Adolescent's cultural adjustment, Journal of future adolescent.
- [3] Han Saem, Nam Seockin, Kim Yungyong.(2010). The influence of life event stress on North Korean Refugees' adjustment in South Korea: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network,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vol. 15. no. 1.

- [4] Hong Changhyong, Ryu Jungja, Jo Younga, Um Jinseob, Gu Hyunjee, Suh Seungwon, Ahn Eunmee, Min Sungkil, Jun Utaek.(2006). A 3 years longitudinal study North Korean refugees' PTSD. *Journal of Psychiatry*. vol. 44. no. 6.
- [5] Han Inyoung.(2001). A study on North Korean refugees' depression,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 [6] Unification Found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s.(2014). Survey on North Korean Refugees
- [7] Kang Changu.(2012). Settlement problem and outlook of North Korean Refugees : Focusing on employment promotion ways, *Journal of Democratic Civil Education in South Korea*.
- [8] Kim Jaeyub, Choi Jyhyun, Yu Wonjung.(2012). The influence of PTSD on North Korean Refugees' social adjustment in South Korea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ego resilience and social exchange, *Social Welfare Study*, 43(4).
- [9] Lee Geeyoung.(2002). Qualitative analysis on North Korean Adolescent's adjustment in South Korea. *Korean Youth Journal*.
- [10] Yun Yesang.(2001). North Korean Refugees' role and social adjustment in the period of inter Korea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Journal of Korean East and North Asia*.
- [11] House, J. S.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 Addison-Wesley. 1981.
- [12] Park Meesock & Lee Jongnam.(1999). Difficulties and coping ways in the South Korea adjustment of North Korean Refugee family, *Journal of Unification*, vol 17.
- [13] Park Younghee.(2003). Practical ways of North Korean Refugees' integrated community. *Professor's Journal*.
- [14] Ju Eunju, Oh Jungsu.(2011). Affecting factors of community resident's social support for North Korean Refugees. *Journal of Social Sciences*.
- [15] Ryff, C. D.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 s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989.
- [16] Kim Yunhee, Kim Cango, An Nayoung, Yu Shieun.(2006). Guidebook of mental health improvement program, Anyang : baby play
- [17] Jo Hana, Choi Yunsil.(2013). The effectiveness of group art therapy for North Korean Refugee's psychological adjustment : Focusing depression and guilty conscience, *Journal of Counselling Science*.
- [18] Lee Geeyoung, Sung Hyangsook.(2001). A survey on the perceived family relationships of North Korean Refugee Family member, *Korean Social Welfare Journal*. vol. 47.
- [19] Yun Ingin.(1999). Adjustment actual condi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new approach of settlement support. *Korean Sociology*. 33(2).
- [20] Song Yunshin.(2009). "Path analysis on middle aged Christian women's stress, coping style, quality of life, religious maturation". Baeksuk Uni. Ph.D. thesis
- [21] Lazarus, R. and Folkman, 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Verlag, New York. 1984.
- [22] Lee Sookja, Oh Susung.(2006).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of developmental disorder child's mothe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coping style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Counselling*.
- [23] Park Jiwon.(1985). "A study for developing social support scale". Yonsei Uni. Ph.D thesis

### Authors



Han-Min Lee received the M.S. in social welfare from Chosun University in 2006 and finished Ph.D. course in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Chosun University 2015. Han-Min Lee is working at Gwangju Buggu District Office as public servant. He is interested in social welfare practice, social welfare case management and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etc.



Seong-Ok Kweon received the Ph.D in social welfare from Chosun University in 2005. Seong-Ok Kweon is a professor of Dept of Social Welfare Songwon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Community Social Welfare, and Social Welfare Practice etc.



Hwieseo Park received Ph.D in public administration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93. Hwieseo Park is a professor of Dept. of Social Welfare & Public Administration, Chosun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social welfare policy etc.